

새로나온 詩集

내가 드디어 하나님보다

황학주 작



자전거포 점원, 목공, 선반 조립공 등 다양한 삶의 경력을 지닌 시인의 두번째 시집. 고향을 잃고 끝없이 떠도는 자의 슬픔이 짙게 베어 있다. 수물

된 고향, 계화도 간척지의 농사, 도시 변두리의 어두운 삶이 시인 특유의 어법을 통해 드러나 있다. 민중의식을 토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식성에 빠지지 않고 절실한 감동을 불러 일으킨다.

열음사 / B6신 / 93면 / 2300원

이 가문 날에 비구름

김지하 작



한국 근대사의 중요한 인물의 하나인 수운 최제우의 행장을 김지하가 유장한 서사적 구조에 담았다. 대설 「南」과 일맥 상통하는 작품. 최제우

의 사상적 핵심인 후천개벽과 생명사상을 노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삼세계의 잠재된 힘과 한반도의 희망찬 미래를 잠언처럼 제시하고 있다. 조선을 둘러싼 제국주의 세력의 침탈에 맞서 민족 내부에서 용솟음치는 구국의 역동성을 포착하고 있다.

동광 / A5신 / 104면 / 2000원

어머니

金初蕙 작



「사랑각」「섬」 등의 베스트셀러 시집을 낸 바 있는 중견 여류 시인의 다섯번째 시집. 어머니를 주제로 한 51편의 작품을 수록했다. 어머니라는

소재가 갖는 개인적 감상에 빠지지 않고 삶의 교육자이자 인생의 거울인 영원한 존재로 어머니를 승화시켰다. 간결한 언어 속에 간결한 심정을 잘 융해시켜 시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

한국문학사 / B6신 / 127면 / 2000원

바람세레

金南祚 작



전후 여류시의 대표적 존재 김남조시인의 최근 시모음. 부군 김세중교수가 별세한 후 수개월간 절필했다가 다시 쓰기 시작한 시를 수록했다. 보

다 원숙해진 눈으로 삶과 죽음을 통찰하고 있으며, 삶의 허무함을 신앙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시인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시집 뒤에 「나의 시, 나의 시론」이라 하여 7편의 산문을 실고 있다.

문학세계사 / A5신 / 166면 / 2600원

사랑을 나누면서

성기조 작



한국교원대 교수이며 시·소설 양분야에서 활동해오고 있는 중견시인의 최근 시모음. 총4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1부는 자

연에서 얻은 상념을 인생살이와 연결시킨 작품으로, 2부는 늦게 둔 딸과 대화하는 형태의 작품으로, 3부는 오래도록 남아 있는 기억을 詩化한 작품으로, 4부는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하며 쓴 작품으로 엮여져 있다.

홍익출판사 / A5신 / 128면 / 2000원

개닭이

오승철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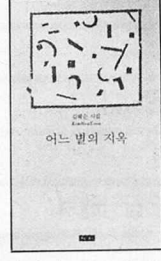
81년 동아일보 신춘문에 시조부문에 당선되어 등단한 시인의 첫시집. 제주도 풍물이 80편의 시조에 잘 드러나 있다. 제주도 향토의 시인답게

그의 작품 속에는 평과 섬마을의 풍경이 자주 나온다. 차분한 풍경묘사 속에 깃든 시인의 소박한 심정이 돋보인다. '엇갈려 부는 바람' '바닷가 외로움은' '먼 산에 장끼 우는 날' '산 노을 사위는 뜰' 4부로 나뉘어져 있다.

나랏말싸미 / B6신 / 110면 / 2000원

어느 별의 지옥

김혜순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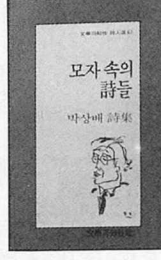
발랄한 상상력으로 우리 시대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여자 시인 김혜순의 세번째 시집. 산업화·도시화의 물결 속에 정체성을 상실하고 물

화현상의 포로가 된 현대인의 비극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다. 육체적·생리적 체험을 과장해서 드러냄으로써 희극적 효과를 거두는 한편 시에 대한 고정관념의 수정에도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청하 / B6신 / 120면 / 2000원

모자 속의 詩들

박상배 작



한양대 독문과 교수로 재직중인 시인의 첫시집. 60년대 시단에 데뷔한 이래 오랜

기간 절필하다가 80년대 중반부터 새로이 쓰기 시작한 작품들을 모았다. 시에 대한 깊은 자의식과 창작 방법론에 대한 반성을 드러내는 그의 시들은 기존의 시 형태를 깨뜨리는 동시에 안과 밖, 있음과 없음이 실은 하나로 잇닿아 있다는 독특한 인식 체계를 보여준다.

문학과학사 / B6신 / 121면 / 2000원

가난한 사랑노래

申庚林 작



「농무」 이후 지속적으로 시와 생활의 밀착을 위해 노력해온 신경림의 서정시집. 최근 들어서 민중시의 큰 흐름 중의 하나인 '서정성의 회복'에

이 시집도 맥을 대고 있다.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착한 이들의 따뜻한 연대의식과 정겨움이 잘 표현되어 있다. 혼란스럽고 도박된 현실에서 한걸음 물러서서 조용히 관조하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실천문학사 / B6신 / 121면 / 2000원

꽃이 죽어가는 이유

강미영 작



간호원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무하기도 한 여자시인의 첫시집. 이때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아라비아의 靈歌」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작

품이 시인의 주변에서 소재를 끌어오고 있다. 생명의 고귀함에 대한 시인의 경의심이 잘 드러나 있으며, 개인의 진솔한 감정을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표현으로 나타낸 것이 장점.

제3기획 / B6신 / 184면 / 2000원

두고 온 동굴

白松 작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이 하나밖에 없는 불구의 몸으로 시를 써온 백송(본명 白松基)의 시집. 농사철엔 밭을 갈고 농한기엔 동굴에서 양손가

락에 펜을 끼워 시를 써왔다고. 15년이란 긴 세월 동안 고독 속에서 써온 시를 한편의 시집으로 묶었다. 어설픈 꾸밈이나 가식없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다.

日善企劃 / A5신 / 180면 / 2500원

새들은 하늘을 자유롭게 풀어 놓고

황인숙 작



경쾌함과 자유로움으로 가득한 젊은 여자 시인의 첫시집. 숲, 새, 고양이, 지네와 같은 자연물을 주요 소재로 삼고서 삶과 환상 사이에서 왕복

운동하는 시인의 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현실의 불필요한 구속에서 해방되어 비상하고 절주하는 상상력의 묘기가 현란하게 펼쳐지고 있다. 순수에 대한 열망과 그것을 차단하는 삶의 안타까운 한계를 보여준다.

문학과학사 / B6신 / 150면 / 2000원